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네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1995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살아온 만큼 영적진보가 있었는지 주위를 돌아보는 일들이 소리없이 이루어지기를

1995년도 이제는 한 달이 남았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할 때와는 달리 누구든지 한 해를 보낼 때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오락가락 하게 한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없는 과거로 물어버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교회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던 해였다. 당회장 목사님의 갑작스런 사임과 연이어 터져 나온 대형사고들과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뒤숭숭한 가운데 있다. 모두가 당혹해 하는 가운데 1995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의 끝에 와 있다.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우리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교회는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마무리와 새해의 계획으로 바빠지게 된다. 이미 11월 첫 주에 각 위원장 및 부장을

발표했고, 내년도 신임 사립집사와 권찰 후보자를 발표했고 교육 및 면접을 마쳤다. 또한 각 부서의 새해예산 계획 및 심의에 한창이다. 또 교회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들도 한 해의 마무리로 부산한 모습들이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마감하면서 금년 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때이다. 그것은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금년 한 해의 계획과 실행, 차이가 난 이유, 하나님 앞에서 의미있게 살았는지, 한 해 살아온 만큼 영적 진보가 있었는지 등을 돌아켜 보며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 한 달은 중요할 것이다.

사편 기자와 말과 같이 세월은 신속히 그리고 날아갈 듯이 가는데 우리의 삶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기에 한 해 한 해를 의미있고 소중하게 보내지 않으면 어느덧 다 살아버린 그래서 더 이상 살 날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바라보고 많

은 해야 할 일 가운데서도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이, 각자의 소속된 곳에서 소리없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개인도 억지로라도 여유를 내서 기도원이나 조용한 곳을 찾아 정리하며 한 해를 보내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실패를 새해에는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의 작은 성공을 새해엔 더욱 큰 성공으로 열매맺기 위하여.

새벽기도회

오전 5시에 한 번만

교회는 그동안 오전 4시 30분과 5시 30분에 모이던 새벽기도회를 오는 11월 27일(월)부터 오전 5시에 한 번만 모이기로 했다.

전도위원회 총회

전도위원회 총회가 12월 3일(주일) 오후 3시 갈릴리움에서 모여 1년간의 전도회 사업의 결산과 새해 계획을 세운다. 각 전도회 지회장 및 연합회장들이 모두 모인다.

총현기도원 전화번호 변경

· 사 무 실: (0347) 65-5472
66-5425
· F A X: (0347) 65-5425
· 원 장 실: (0347) 66-3077
· 지도목사실: (0347) 66-1160

고 김연순 공로전도사

11월 20일(월), 교회장 엄수

김연순 공로전도사가 9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11월 18일(토) 오전 3시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 고 김연순 공로전도사는 원산 보혜여자신학교를 졸업하고, 1933년 함북 온성장로교회 전도사로 시무를 시작하여 계속 사역해 왔다. 8.15 해방으로 월남 후 후암장로교회 전도사로, 6.25동란으로 부산 피난시절에는 부산경찰병원교회 전도사로 시무했다.

1953년 충현교회 설립시부터 충현교회 전도사로 시무하다가 1964년 공로전도사로 추대되었다. 고 김연순 공로전도사는 공로전도사로 추대된 후에도 개인적으로 병약한 자들을 위로 심방하고 늘 교회당에 나와 기도하며 후배들에게 큰 보탬을 보여왔다.

11월 20일(월), 오전 10시 본당 앞마당에서 교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에는 김장인 원로목사는 사회와 설교를 맡아 디모데전서 4장 6-8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사람의 가신 길'이란 제목의 설교를 했다. 이 설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고 김연순 공로전도사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두란 공로전도사의 약력소개, 여전도사의 특별찬양 등으로 장례예배를 마치고 교역자, 장로, 조문객 순으로 헌화를 한 후 충현동산에 안장됐다.

유가족으로는 우리 교회 원로장로인 김기정 장로(자부 이정숙 권사)와 세 명의 손자와 자부, 한 명의 손녀와 손서가 있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생탄절에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게 수고하시는 선교자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등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생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생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1995년 12월 5일(주일) 17:00까지
 - 접수시간: 매일 오전 9:00 - 오후 5:00
 - 접수장소: 사무국 (총무과)
 - 접수종류: 생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기탁
- (반드시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선교위원회 사무실(☎ 552-8200 (교) 357번)



중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다윗의 새벽기도

(시 5:1-12)

이 시편은 저자의 환경이 악한 사람으로 둘러싸여 가슴이 아파 탄식하는 때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새벽기도입니다.

1. 간구하는 다윗의 중심은

(1) 나의 중심을 살피소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5:1)라고 했습니다. 바리새교인들은 말로는 사람 보기에 정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정당하지 못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죄가 있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중심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말이야 어떠한지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여! 우리들은 불꽃 같으신 눈을 가지시고, 숨을 곳이 없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의 말이 정당한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은 중심이 정당한 다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할 때에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듣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보다 돈을 백배나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실까 염려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은 “내 말과 내 중심을 통촉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아주시라는 것입니다.

(2) 나의 왕이시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어……”(5:2)라고 했습니다. ‘나의 왕’,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이지만 결코 자기가 교만할 수 없는 자인 줄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구덩어리 한 모퉁이를 다스리는 임시 왕이고, 하나님은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종입니다.’ 얼마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로 안 겸손한 기도입니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관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섭리하시는 섭리주, 나 행한 것 선악간에 심판하실 재판장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충성스러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모시고, 간절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다윗 왕을 배워야겠습니다.

(3) 아침에 바라리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5:3)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였습니다. 아침은 한 날의 출발입니다. 때문을 열고 나서는 시작입니다. “아침 짐을 떠날 때에 기도했느냐?” 우리는 아침에 떠나기 전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쏘 다음에 맞았나 안 맞았나 살펴야 되는 것처럼, 다윗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나,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기도를 드렸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2. 다윗의 간구의 내용은

(1)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양

첫째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5:4)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5:5)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뛰어나서 뽐내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미워하고 물리치시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어리석게 뽐내며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멸시하려고 하는 오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거짓말 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시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5:6)라고 했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모든 거짓말은 악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나오는 거짓말은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입니까?

(2)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대한 감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생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5:7)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아서 용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인자 때문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자신의 부족과 하나님의 공휼을 알고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과 악독이 팽 차고,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꼭 참는데, 나같이 못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미를 부르고, 마음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내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감사합니다.

(3)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청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5:8)라고 했습니다. ‘원수의 모함에서 건져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탁을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나는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데, 한없이 많은 원수들이 계속해서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니다. 그들의 험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 무덤과 같습다. 무덤에는 송장이 있습니다. 무덤은 열기만 하면 대립과 악독한 뱀새가 나옵니다. 그들은 입을 열기만 하면 저주, 음란한 노래, 거짓말 등 목구멍에서 나오는 팔 전부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원수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악한 자의 앞에 패배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욕이 되겠

더 나아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나 자신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며 바로 섬깁시다.



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져 달라고 간구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길을 곧게 해 달라’는 말은, 장애물이 없이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말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장애물이 없이 곧장 건너갔고, 여리고가 앞을 가리었지만 장애물이 안되고 곧장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성공하기를 원하는 노력은 헛된 노력이고, 필경에는 죄만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음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에 덤벼도 안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불신하고 주저해도 안됩니다. 기획을 주셨는데 머뭇거리면 사십일 동안 머뭇거리다가 사십년을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됩니다.

(4) 원수에 대한 심판을 요청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죄하사 자기 피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5:10)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피에 자기가 빠지는 심판으로 해결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죄가 많은데, 이제는 하나님, 징죄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가만 내버려 두시는 기회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권세 잡고 너무 오래 있으면 악한 백성들이 억울함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원수가 있어도 내가 직접 행동으로 원수 갚으면 안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할 때에도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처치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공의의 원수, 어진 백성들의 원수가 너무 오래 세력을 휘두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되고, 악한 자가 너무 억울함을 당하겠사오니 이제는 징죄하시고 자기가 말하던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5) 주님의 축복을 기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패로 저를 호위하시리라”(5:11-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는 때를 때

에 하나님 품안에 피난한 사람, 하나님 품안에 숨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복입니까?

첫째, 다 기뻐할 수 있는 복입니다(11). 세상 사람은 돈을 기뻐하고, 가족을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 속에 근심과 죄악의 때가 묻기 쉽습니다. 무서운 죄와 형벌이 따라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근심부터 도망가는 기쁨입니다. 둘째, 책임져 주시는 복입니다(12).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요셉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책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세상에 삽니다. 악을 꾸며내는 악의 조각자가 많은 세상에 삽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악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의 조각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둘째로, 악한 자의 앞잡이, 악을 꾸며 놓은 세력있고 돈 있는 사람의 앞잡이, 아침하면서 돈 몇푼 얻어 먹고, 악한 자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다. 우리는 악한 자의 앞잡이도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악에 물들어도 안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 보아도 손해만 보니 소용없다 하며 악에 물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넷째로 더 나아가 새벽부터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나 자신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내 나라가 바로 되기 위해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며 바로 섬깁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같이 못난 것 택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알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품안에서 내 할 일에 충성하면서 억울함을 천 번 불해도 내가 원수 갚자 말고 하나님께 부탁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상 받을 수 있는, 새벽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초청행사를 하고 나서 생각나는 몇가지 ▶

진정한 사랑과 나눔과 섬김

이들은 남다른 언어능력을 갖고 있다.
네팔어와 주변의 인도나 파키스탄 등지의 언어는 물론이고,
몽고어나 우리말, 영어까지도 어렵지 않게 구사한다.
이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남부아시아를 하나님께로"라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정협
(영어에배부)

이번 행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준비하는 사람의 안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계획하셨다. 단지 준비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을 궁구할 뿐이었다.

영어에배부 구성원들의 달란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해야되지 않는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행사'를 기획했지만,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은 대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역팀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대학부 사역팀의 지난 일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년선교회, 갈릴리교회 등 외국인근로자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교회를 방문하면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구체화시켜 나갔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행사 일주일 전 초대장을 나눠 주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숙소를

방문한 일이다. 두곳을 방문했는데, 첫째로 방문한 곳은 성남피난처였다. 손이 잘려나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면서, 보다 순전한 헌신만이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의 서러운 한을 짊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번째로 방문한 곳은 평촌의 한 공장기숙사였다.

우리는 이곳에서 지역의 하늘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는 몇몇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렵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료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잘못하면 영혼에 대한 구원은 고사하고 이들의 버릇만 나쁘게 만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병행되어

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지 하나의 소모품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촌의 NCGF(Nepalic Christian Gospel Fellowship)의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은 두 가지 면에서 관심이 간다.

신앙에 대한 열심이 남다르다.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나쁜 근무환경 속에서도 일주일마다 세번씩 집회를 하고 성경을 손으로 일일이 옮겨쓰는 일을 마다 않는다. 사철헤라는 네팔 청년은 20여명의 동료들을 자기 집에 재우고 그 다음날 교회 행사로 데려오는 열심을 보였다.

두번째로 이들은 남다른 언어능력을 갖고 있다. 네팔어와 주변의 인도나 파키스탄 등지의 언어는 물론이고, 몽고어나 우리말, 영어까지도 어렵지 않게 구사한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남부아시아를 하나님께로"라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총현교회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내적으로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동료들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오신 집사님 덕분에 빈자리 없이 채워질 수 있었고, 맛깔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신 권사님, 집사님들로 인해 오랜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부를 수 있었고,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겨울옷 한 점, 한 점이 쌓여서 돌아가는 이들의 얼굴에 감사가 넘칠 수 있었다. 더욱이 의료선교회의 활동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내내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이런 대내외적인 힘이 합쳐져서 총현교회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에 보다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난다.

▲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上)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겨울옷 한 점, 한 점이 쌓여서 돌아가는 이들의 얼굴에 감사가 넘칠 수 있었다(下).

◀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

가을에 띄우는 편지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꽃은 술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잎은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해마다 감사의 계절, 열매의 계절
가을이 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요. 없는 것이 있다면 단 한가지 별것 아닌 돈뿐입니다."

이 세상은 얼핏보면 돈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돈으로 되는 것보다 안되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깊은 단 잠은 살 수 없습니다. 값비싼 책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도 명석한 두뇌와 인생의 지혜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겠지만 행복은 사지 못합니다. 수억원의 돈을 눈앞에 두고서 다만 별것 아닌 돈으로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친구와 본 적이 있는 영화 '기쁨의 도시' (City of Joy)의 마지막 장면의 자막에 새겨져 있던 "참된 인

생의 기쁨은 주는 데에 있다"라는 글귀가 가슴에 박혀 통증을 일으킵니다. '나는 왜?...' 가끔은 뉘뉘놓고 마루 위에 걸터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도 색깔도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되돌아 서면 어쩌면 시야 멀리 사라지는 풍경처럼 나도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시원스럽게 뚫린 도로의 모습처럼 그런 시원스러운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잘못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우울한 날들을 지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연습해보고 걸을 수 없는 삶이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옮겨봅니다.

언제까지나 작은 불씨 하나로 남아 있다가 사그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노벨의 '조금'이란 식기처럼 설당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고,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며, 햇빛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나고, 조금 남은 양초로도 하늘하늘 춤추는 즐거운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만큼 큰 불을 이루어 주변을 따뜻하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캄캄한 이웃을 환하게 밝히려는 불씨 모음에 내 작은 삶을 드리우고 싶습니다.

(이미옥)



토·막·소·식

◆ 초등1부는 오늘(11/26) 오전 8시 50분, 교육관 307호에서 예수사랑 초청 잔치로 모인다. 믿지 않는 친구를 기도로 준비하여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다.

◆ 고등부에서는 오늘까지 재미있고 기념이 될만한 사진을 가져와 사진콘테스트를 펼친다. 또한 중창페스티벌에 신청한 모든 팀은 12월 3일~17일 갈릴리홀에서 모이기를 바라고 있다.

◆ 사랑부에서는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성도로 사랑부에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고 있다. 매주일 사랑부 학생들을 집에서 교회까지, 교회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된다.

◆ 예배다부(농아부)는 12월 3일(주일) 창립8주년을 맞아 기념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화찬양제와 사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수화찬양제에서는 초등부, 중등부의 수화찬양과 울동, 고등부의 성극, 성인반의 찬양과 성극을 수화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시간을 갖는다. 성도들

의 많은 참석으로 기쁨을 같이하기를 바라고 있다.

◆ 음향실에서는 노후된 마이크와 스탠드를 재생하기 위하여 각 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중 불량품으로 못쓰게 된 것을 수거하고 있다. 12월 10일까지 수거될 이 마이크와 스탠드는 갈릴리홀 음향실이나 사무국으로 가져오면 된다.

중등 3부 학부모·교사 기도회

중등3부(부장 김종구 장로)에서는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청소년교육 환경을 보며 바른 교육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꾸준히 기도하여 오던 중 이제는 교회와 가정의 함께 연합하여 이를 극복하기로 하고 학부모·교사 연합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11월 26일(월) 오전 12시 30분 교육관 514호실에서 중등3부 학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11/27(월) 신·구 교회학교 부장 회의
2. 중헌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시라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소서.
5. 제2교육관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서만수 선교사의 건강(신장과 간)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6.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7.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에 합한 담임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95 중헌 찬양의 밤 '95 중헌 찬양의 밤이 지난 11월 17일(금), 오후 8시부터 본당에서 열렸다. 오케스트라(2, 3부 연합)와 7개 찬양대, 2개 연주대, 남성중창단 등 교회내 전 찬양대와 연주대가 참여하여 펼친 중헌 찬양의 밤은 음악회 형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분위기에서 치뤄졌다. 본당을 가득 메운 교우들과 함께 1년을 결산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모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프로그램 중 전 찬양대와 회중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도 있어 더욱 좋았다. 마지막 곡은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로 전 찬양대원(찬양대원석 및 2층 전 좌석)이 연합으로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뉴질랜드 김형선 평신도선교사



교회명칭도 저희들이 파송받은 모 교회임으로 뉴질랜드 중헌교회로 칭하려 하오니 뉴질랜드 중헌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선교하는 교회로, 교육하며 전도하는 교회로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분주다사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섬기던 교회가 저희 거주하는 곳에서 45Km(100리)가 넘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해도 불편해 할 뿐만 아니라 교회출입을 기피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본 교회에서 이곳에 선교사 파송이라도 해준다면 하고

생각했었지만 교회적으로 우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교회 사정을 고려치 못하고 이곳에 안타까움만 생각하고 청원을 드렸던 바를 사랑과 관용으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해 왔습니다만 본 교회 사정상 선교사 파송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곳 이민 정책이 지난 12월에 바뀐데 이어 또다시 6개월만에 금년 7월부터 고용 가능성, 나이, 학력 등으로 점수

를 산정하는 일반 이민자 점수를 31점으로 상승 조정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최근 뉴질랜드 이민 희망자의 증가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더욱기 10월 31일부터는 전 가족 영어테스트에 합격해야 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신이민법은 비영어권 국가에선 까다롭고 어려운 자격조건이기도 하여 기왕의 청원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오클랜드 전 시내에 한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갈급하면서도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시들여가는 영혼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중 귀한 목사님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우신득 목사(42세)로 총신대와 총신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목회경력 16년. 원동교회, 양문교회에서 부목사로, 강동양문교회, 화곡양문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셨고 사모는 이광현(상담심리학 전공(41세))입니다.

지난 6월 초에 저희집을 찾아오서 말씀하시길 선교사 교육중 계속 저희 가정

과 협력하여 교회를 이루고저 기도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곳의 안타까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신 특별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며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는 바른 교회를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 새로 생기는 교회를 위하여 각종 교육자료와 선교자료 등을 보조해 주시는 등 자세히 하교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명칭도 본 교회를 생각할 뿐 아니라 저희들이 파송받은 모 교회임으로 뉴질랜드 중헌교회로 칭하려 하오니 아무쪼록 새로 개척하려는 뉴질랜드 중헌교회를 위해서 감히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